

# 靑 문건 추가 발견... '삼성 합병' 개입 정황

###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朴정부 문건 목록 공개

### 보수단체 재정지원·보수논객 육성 활성화 등 담겨

청와대는 20일 국정상황실에서 추가 발견된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문건 목록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보수이념 확산을 주도하기 위해 보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을 암시하는 문건은 물론 카카오톡의 좌편향된 검색 기능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문건도 나왔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지시하는 등 서울시 정책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문건도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던 현재 청와대의 국정상황실 캐비닛에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504건의 문건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정환경진단 및 운영기조’(2015년 4~6월)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 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방안이 담겼다. 2015년 7월에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 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박 대변인은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문건과 ‘해외 해지펀드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이란 제목의 문건도 주목을 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해외 해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선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

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히 하고 관계 부처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이 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부처 현안 관련 정책참고’ 제목의 문건에는 ‘카카오톡 검색(※) 검색 기능과 관련한 좌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카톡 자동 연관검색어를 개선토록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중앙정부·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

레이미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야 한다’고 적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 검토’라는 문건에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고 돼 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때의 문건도 극소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건에 대한 분류·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특검에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협조 좀 해주세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황주홍 예결위 간사,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대통령 “재정투자 중심은 SOC 보다 사람”

### 오늘까지 국가재정전략회의

### “소외계층 배려·중소 우선

### 지역간 균형발전 고려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

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중심은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이고, 국민성장이다”며 “그 핵심은 역시 일자리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의 재정을 주문하고 싶다”며 “새 정부 재정투자 중심은 사람이다. 재정을 통한 정책효과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었지만 새 정부는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재정운용에 있어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 우선, 중앙과 지방의 격차 해소,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우선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작된 재정전략회의는 다음날까지 이어진다. 이 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모든 국무위원 등이 모여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 위급 의사결정회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다. 이번 회의에선 재정운용과 재정투자 두 세션으로 나눠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재정정책방향과 국정과제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당·정·청 간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여당대표, 원내대표, 정초위원장 등이 처음으로 참석했으며 17개 부처의 예산 담당 실장들도 배석, 회의결과를 공유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천정배 “민주와 합당 불가능한 일”

### 내달 국민의당 당권 도전



그렇게 비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민주당과 합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회의원이나 제가 만나는 핵심 당원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전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지방선거 이후 당내 여론이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묻자 “지금 미래를 예단할 수 없지만, 1년 가까이 남았는데 국민의당 미래에 대해서

가 성급하게 말할 일은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말씀드리기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천 의원은 나아가 안철수 전 대표의 제가 여부에 대해서는 “그분 자신이 하기로 하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반성과 성찰이 제대로 된다면 다음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국민의당 단일지도체제로 가나

### 의총서 다수 의견... 혁신위 변경안 수용 주목

국민의당 혁신위가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위기극복 방안으로 내놓은 지도체제변경안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당 혁신위가 제시한 변경안의 핵심은 당대표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각종 혁신과제를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 집단지도체제에서는 최고위원회에 각종 권한이 분산돼 있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 열린 국민의당 의원 총회에서 의원들은 당 혁신위가 제시한 단일지도체제 변경안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최고위원제 폐지에는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 변경이 옳은 방향이라는 의견이 주류였다”고 전했다.

당권 주자 입장에선 잇단 약재들로 위기를 맞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당원은 물론 국민에게 완전히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뚜렷하다.

최 원내대변인은 “의총은 전체 의결권 수렴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조만간 전체가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형호기자 khh@

# ‘추경 처리’ 국민의당에 쏠린 눈

###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 정부여당에 협조 기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면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입장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두고 대립하던 여야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추경 심사를 재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경 심사를 마친 후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윤호덕 의원은 이날 오후 예결위 여야 4당 간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전제조건을 다 없애고 예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심사를 꼼꼼하게 해서(예산의) 필요성이 전혀 없으면 삭감하는 등 원칙적인 심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 의원도 “공무원 증원 부분을 빼고 우선 일단락 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심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 쏠리고 있다. 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과 3당 공조를 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정부여당에 협조하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 비대위원장의 20일 의원총회 모두발언도 눈여겨볼 만하다. 박 비대위원장은 “추경과 관련해서는 (19일 여야 4당대표 오찬회동에서) 대통령이 간곡한 이야기를 했다. 황주홍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추도를 통해서 기왕에 국회가 정상화 이뤄질기 때문에 이 추경문제나 정부조직법 문제도 우리가 주도해서 해결하는 모습이 비춰졌을 때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형호기자 khh@

## 24/35PY 분양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 아이조움

# 분양 전환 계약금 500만원

대출 70% OK!

이자만 납부 OK!

청약 통장 NO!

즉시 입주 OK!

24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35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분양문의 (062) 610-9232